

사회



27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인도에 설치된 지정벽보판이 낡은 데다가 선정적인 포스터까지 지저분하게 부착돼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낡고 녹 투성이에 선정적 포스터 덕지덕지 '공인 흉물' 된 지정벽보판

## 광주도심 379개 관리 소홀 경관 해쳐

광주지역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치구의 지정벽보판이 낡은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심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지정벽보판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선정적인 포스터 위주로 부착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자치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

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에 설치된 지정벽보판은 ▲동구 23곳(54개) ▲서구 50곳(71개) ▲남구 46곳(68개) ▲북구 92곳(153개) ▲광산구 31곳(33개) 등 총 242곳 379개에 이른다. 각 자치구는 지정벽보판을 민간에 위탁, 수수료와 대행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개번에 수 십장의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지정벽보판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로변이나 출근길, 통학로 등 평소 시민과 학생들이 자

주 통과하는 길목에 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철재로 만들어진 지정벽보판 상당수가 설치된 지 10년 가까이 되는 등 오래되면서 녹이 슬고, 벽보틀이 훼손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또 지정벽보판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벽보판과 달리 투명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부착된 포스터가 비와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더럽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정벽보판에는 상의를 벗고 서 있는 남성 가수와 야한 옷차림을 한 여성 가수 등 선정적인 사진이 담긴 나이트클럽 포스터

도 잇따라 부착되면서 인근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우려도 깊어가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모(여·41)씨는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오가며 지나는 길에 설치된 지정벽보판이 나이트클럽 포스터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광주 모 자치구 관계자는 "낡은 지정벽보판을 보수·교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선정성을 고려해 포스터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하룻새 여고생 2명 '납치 행각'

## 광주 삼각동서 미수 그치자 순창서 또다른 여고생 납치

### 16시간 감금 후 풀려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납치 미수 사건(광주일보 6월 27일 6면)의 범인이 같은 날 밤 순창에서 또 다른 여고생을 납치한 뒤 광주에서 풀어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은 27일 학교 기숙사로 향하던 여고생을 흥기로 위협해 납치, 하룻밤 동안 끌고 다닌 김모(44·담양군 무정면)씨를 납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6시30분께 순창군 순창을 모

고등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A(16)양을 강제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뒤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날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한 신발가게 앞에서 홀로 귀가중이던 여고생 B(17)양을 흥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광주에서 B양을 납치하려다가 실패하자 차량을 몰고 순창으로 이동, 학교로 들어가려던 A양을 뒤쫓아가 같은 수법으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광주로 내려온 뒤 범행에 사용한 체어맨 승용차를 액터인 차량으로 바꿔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B양을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 학교 인근에 풀어준 뒤 달아나 북구 용두동 한 모텔 객실에 투숙해 잠을 자던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홍악범에게도 '스마일' 하라고?

### 광주경찰, 배지 부착 지시에 강력팀 형사 불만

광주지역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은 앞으로 사건이 터지면 수갑 등 관련 장구를 챙기기 전에 가슴에 달고 있는 '스마일 배지'부터 떼어낸 뒤 출동해야 할 것 같다.



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스마일 배지 부착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정보과 등은 배지 착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 근무 중인 강력팀 형사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업무 성격 때문에 사복 차림에 일반 승합차량까지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 모 경찰서 강력팀 A형사는 "사건 현장에서 잠복이나 수사할 때는 스마일 배지를 제거해 두는 게 낫지만,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갑작스럽게 출동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배지에 신경 쓰느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 관계자는 "업무 특성을 반영해 배지 부착 대상자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여경 1만명으로 늘리겠다"

### 조현오 경찰청장

여성 경찰관 수가 앞으로 1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경찰청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여성 경찰관 수를 중장기적으로 1만명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관 10만1637명 중 여경 수가 701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9%인 여경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여경은 경무관 1명, 총경 6명, 경정 40명 등으로 고위직에서도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생활안전 분야가 전체 여경 중 36.7%, 수사과 21.0%, 경무과 20.1% 순이다. /연합뉴스



어울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여경은 경무관 1명, 총경 6명, 경정 40명 등으로 고위직에서도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생활안전 분야가 전체 여경 중 36.7%, 수사과 21.0%, 경무과 20.1% 순이다. /연합뉴스

##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 대출사기·횡령·배임 혐의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499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 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법인자금 횡령 중 일부 등 2136억원에 관한 사기, 횡령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8900억원의 대출사기 등 모두 1조3635억원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재신(69) C&우방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임갑표 수석부회장, 박명종 C&우방 전 대표 등 그룹 임직원 10명에게는 "임병석 회장의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최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42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나원침 (8345) 김중수



### 임동서 편의점 강도

27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모 편의점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해 여성업원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6만원과 담배 1보루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 등을 토대로 키 170cm에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음주운전 40대 응벌 받아

지난 26일 밤 9시35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한 도로에서 차모(43)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 인근 응벌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붙어 나면서 차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신모(42)씨가 몸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 같으면 안데리고 산다"에 몸싸움

○"자기 아내의 얼굴을 못생겼다고 지적한 것에 격분, 몸싸움을 벌인 중년의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지난 26일 밤 8시45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모 식당 안에서 최모(57)씨와 떡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동네 주민인 이들은 함께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였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최씨) 내 부인 얼굴을 가리키며 '나 같으면 안데리고 산다'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2012 exam preparation course. It features the text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140,000 successful candidates say),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2012 university transfer is with Kim Young), and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7 out of 10 successful candidates are graduates of Kim Young!!). It lists the course as '기여편이하인 모인보수권' (Quality-oriented, guaranteed enrollment)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and 'www.kimyoung.co.kr 개강: 7월 1일'.